

## ‘지방소멸위기 특별법’ 통과돼야 ‘수도권 공화국’ 막는다

국가기관 충청권 이전·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 지방 소멸 부추겨  
지난해 전남 청년 1만3419명 교육·취업 찾아 서울 등으로 떠나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에 대한 장단기 계획과 그에 따른 일관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함에도 매파적 처방과 함께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정책이 뒤섞이면서 국가균형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초라하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충청권으로의 국가 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확장, 불균형 해소 없이 현재 인구·경제 규모를 기준에 둔 정책, 공급 위주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 등이 지방을 소멸시키는 대표적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도, 경북도 등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무려 5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도권, 충청권 등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인구는 청년을 중심으로 급감하고 있다.

2월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인구가 2019년 186만8745명에서 2020년 185만1549명으로, 1만7196명이 감소했다. 지난 2019년 감소 인구(1만4225명)에 비해 약 3000명이 더 줄어든 것이다. 자연 감소(7682명), 타 지역 유출(9754명), 기타(240명) 등이 원인이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감소 지자체는 모두 12곳으로, 전남(0.92% 감소)은 이 가운데 울산(1.0% 감소), 경북(0.99% 감소)에 이어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전남의 미래인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청년인구 비율은 23.19%로 고령인구 비율(23.5%)보다 처음으로 낮아지면서 인구 구조가 더 취약해졌다. 지난해 전남에서 순유출된 인구 1만5157명 가운데 15~39세가 1만3419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하고 있다. 20~29세가 1만994명에 달하며, 20대가 1만명 이상 지역을 벗어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만이다. 이들은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전남을 떠나 서울(29.4%), 광주(28.6%), 경기(24.6%) 등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남으로 돌아오는 인구는 중장년층이다. 지난해 전남으로 순유입된 인구 5403명 가운데 40대 이상이 45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중장년층과 고령자만 남게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나서고, 동시에 도민 맞춤형 인구 정책, 시·군 주소이전 운동 전개 등을 서두르고 있다. 인구,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광양시 등은 매달 읍면동장 회의에서 인구 변동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를 뒤엎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불잡는다고 해서 교육, 취업 등을 이유로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수도권에 자본, 기업, 대학 등이 집중돼 있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에서 가장 먼 전남의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만 흑두루미 ‘세계 습지의 날’인 2일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떼가 순천만 습지 인근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고 있다. 흑두루미는 10월에 순천만 습지를 찾아 겨울을 난 뒤 3월 말쯤 사베리아로 이동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1년 ... 하루 최대 112명 확진 ‘흑독한 겨울’

확진자 1851명·사망자 18명

위기 속에서도 나눔과 연대 실천

지난해 2월 3일 광주에서 코로나 1년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매 순간 긴장과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광주시민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쳤고,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전국에 알렸다. 대구와의 병상연대를 비롯한 정부나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른 방역조치는 세계인이 부러워 하는 K-방역의 뼈대가 됐다.

하지만 광주는 새해 들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종교시설발 대규모 지역감염이 확산해 1월 한달에만 7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숫자로 본 코로나 1년=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1일까지 광주 누적 확진자는 1851명(해외 유입 109명)이다. 하루 평균 5명이 감염됐으며, 사망자는 18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20~50대가 57%, 60세 이상은 29.4%였다. 월별로는 지난해 7월 148명, 8월 174명, 9월 117명, 11월 204명 등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가 12월 380명, 올해 1월 71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두 달간 확진자만 전체의 59.3%, 한 달간 38.3%를 차지할 정도

다. 진단검사는 전체 인구수(145만명) 대비 35.4%인 51만3000여건이 진행됐다.

◇2월~6월→8월→11월 ‘위기의 심화’=광주에선 지난 1년간 모두 6차례 위기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 3일 21세기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국 최초로 병원을 동원 집단(코호트) 격리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자, 신천지측 관계자를 대응 TF에 참여시켜 교인명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아내기도 했다.

광주는 또 확진자 2500여명이 발생한 대구에서 병상부족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101주년 삼일절에 대구 확진자들을 광주로 이송해 치료하는 ‘병상 연대’를 선언, 전국에 깊은 울림을 줬다. 6월 27일 방문판매 설명회에서 시작된 2차 위기는 사찰, 교회, 사우나, 고시학원을 거쳐 배드민턴 동호회 등으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결국 7월 1일 처음

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어 유흥업소와 종교시설발 3차 위기에서는 8월 27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39명이나 발생하는 등 총 220여명 감염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6차 위기 현재 진행형=지난해 11월 전남대병원,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4차 위기는 확진자 발생 규모를 키웠다. 5차 위기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6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본격화했다. 요양원, 교회, 유사 방문판매 시설, 상주 BTJ 열방센터 등에 이어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최대 규모 집단감염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달 23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작된 6차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날도 광주에선 오후 6시 기준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 등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전남은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전남도, 설 앞두고 코로나 긴급 지원금

광주시와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을 돕기 위한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3만1500여가구에 각각 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전세버스 운송업체, 운수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와 관련 업체, 시내외 집단 운동시설, 여행업체, 돌잔치 전문 업소 등에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취약 분야로 꼽히는 7

개 분야 종사자 등 1만3616명에게 긴급 돌봄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의 제3차 긴급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외 예산은 사업자별 50만원씩 모두 68억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한다. 대상자가 각 시군에 신청하면, 2월 첫 주부터 설 전까지 전남도가 직접 지급한다.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업종이다. ▲전통시장(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농어촌민박(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일부터 26일까지며, 업종별 신청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의 설 ▶6면

KIA 멘트, 광주서 첫 훈련 “한국은 내 운명” ▶18면

살고 싶은 집 - 백운동 ‘백소현’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3만원 이상



미장센 퍼펙트 에디션  
39,900원  
(2+1)



러 자양윤모 탈모증상케어 세트(자성&건성)  
39,900원  
(3+1)



러 등백&박하 에디션  
34,900원  
(3+1)

●3만원 이하



도담 16호  
16,900원  
(10+1)



도담 21호  
21,900원  
(카드 30%할인)



도담 36호  
36,900원  
(카드30%할인, 10+1)



정성가득 기프트  
55,900원  
(3+1)



희망가득 기프트  
75,900원  
(3+1)



로즈 에디션 1+1세트  
28,900원



라벤더 에디션 1+1세트  
28,900원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2/1 ~ 1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